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22년 10월

선교편지 제 157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선교지 필리핀에 와 있지만, 이 곳에서도 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주변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땅끝까지의 전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가 마치 이 지역의 선교 본부가 되어, 이웃 지역을 복음으로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디고스 내의 '익핏' 지역을 포함하여, '뜨레스 디 마요', '다위스', '콜로라도', '산미구엘', '산호세' 지역 등에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기 위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경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익핏' 지역은 거의 7년 이상 복음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던 중에 참으로 감사하게도 이러한 답보 상태를 풀어줄 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뉴욕 예일교회에서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익핏 지역에 '교회'를 건축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지난 7년여 동안 익핏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참 많은 수고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연고가 없는 가운데 익핏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교사들을 복음화 하는데 모든 선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했고, 시설이 열악한 학교에 화장실과 교실을 세워주고, 컴퓨터와 도서 등을 기증하므로 지역 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누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학교와의 돈독한 관계 속에 매주 채플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초등학교 교정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정도로 선교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비록 교회 건물은 없었지만, 믿는 자들이 조금씩 늘어 가며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전진하면 익핏 마을에도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추게 될 것 같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 반 동안 학교 문이 닫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동안 진행했던 모든 선교의 수고가 한 순간에 정지하고 말았습니다. 매주 학교 채플 시간을 통해 드렸던 예배가 멈추게 되었고, 교정에서 드렸던 주일 예배도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한 코로나의 검은 구름이 서서히 걷혀가고, 굳게 닫혀 있었던 각 학교들도 개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를 맞추어 또 다시 익핏 지역 선교를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동안 익핏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처 교회가 없어서 주로 학원을 중심으로 학생 사역을 했던 저희의 사역과 달리, '이단' 세력들이 코로나 중에도 마을 내에 큰 규모의 토지를 구입하고, 거점을 마련하여 왕성하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익핏 지역 선교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전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이단' 세력을 가장 경계할 대상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의 영향력과 폐해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저 이단의 한 부류라고 치부하고 무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내에서의 이러한 '이단'의 활동은 최근의 일이 아니고, 필리핀 개신교 선교 역사와 거의 동일하게 오래 전 시작되어 왔고, 그 기세도 기독교 못지 않게 여전히 왕성합니다. 이제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이단들이 필리핀 곳곳에 깊이 박혀 있는데, 이들은 막강한 자본을 가지고 자신들의 예배 처소 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병원, 학교, 고아원 등을 세우고 영향력을 키워 나가는 가운데, 개신교와 이단의 구분이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약 350년간 스페인 식민지배 하에 있었던 필리핀은, 1876년 마침내 독립을 하였으나, 당시 국제 정세에 따라 연이어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에 미국의 종교인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어,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보다 비교적 늦게 1898년 개신교 선교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 역사는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으로 입국한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와 미국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을 통해 입국한 1885년을 한국 기독교 선교의 원년으로 삼습니다. 즉, 한국보다 약 13년 정도 늦게 시작한 필리핀의 개신교 선교는 미국 장로교가 가장 먼저 시작하였는데, 한국의 선교 역사와는 사뭇 다르게 아무런 저항이 없이 매우 평탄하고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장로교 이후 미국 감리교 선교사들도 필리핀에 들어오고, 뒤를 이어 미국의 침례교와 스위스의 침례교 선교사들도 마닐라를 중심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에큐메니칼 정신을 강조하며 모든 교파들이 연합하여 지역을 분할하여 선교 전략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설립하고, 출판 사업 등에 역점을 기울여 빠른 시일 내에 매우 괄목할 만한 선교의 모범적인 진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교파 별로 선교 전략의 차이와 갈등으로 분열이 시작되었고, 심지어 같은 교단 내에서도 일치하지 못하고 빠른 속도로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안타깝게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고 생소한 개신교 교파와 교단이 형성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특정 교파와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과연 건강한 교회인지 의심스러운 색깔이 불분명한 수많은 독립교회도 우후죽순처럼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여기에 편승하여 소위 '이단'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세력들이 아주 깊고, 광범위하게 주민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없는 땅에 깃발을 먼저 꽂기라도 하는 것처럼, 타국에서 큰 세력을 얻지 못했던 이단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건강한 개신교 교파나 교단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방에 더욱 극심하여, 이제는 선교를 매우 어렵게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에게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와 같은 개신교의 이름은 생소해도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 '여호와의 증인 (Jehovah's Witnesses(JW))', '신천지 (Shincheonji Church of Jesus)',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안식교) (Seventh-Day Adventist (SDA))' 등은 매우 익숙하고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는지, 뜨거운 더위에도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쉽게 마주치기 때문에 그의 명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곳의 무장한 '이슬람' 집단에게까지 평화를 선포할 정도로 막강한 정치력과 재력으로 세력을 넓혀가며 평화의 사도 (?)로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는 곳곳에 있는 자신의 예배 처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열악한 이 지역에 현대식 병원과 학교를 세움으로 실제적으로 현지인의 삶에 유익을 나누며 많은 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디고스 지역은 그 어느 기세 보다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의 영향력이 매우 왕성하여 선교를 매우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에 속해 있었던 몇몇 교인들이 이제 새롭게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 '디고스 예일교회'와 '아팔라야 예일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전에 배운 성경 지식으로 인해, '음식과 날 (Day)'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옛 습관이 남아있고 성경공부를 할 때면 차이점에 대하여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에서 전하는 교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왜곡되었는지, 기존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선교에 매우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정체성은 '안식일을 정확하게 지키고, '임박한 재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미국 침례교 신자였던 윌리엄 밀러 (William Miller)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던 중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며 많은 무리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그 날을 '대실망의 날'로 표현하고 재림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내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 중에서 감리교 신자인 '엘렌 화이트(Ellen G. White)'라는 사람이 자신이 본 2,000여 가지의 환상을 근거로 영혼, 심판, 천사, 지옥, 계시 등을 재해석하며, 1863년 예수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일으켰다고 선포하고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를 정식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녀가 본 환상과 계시에 따라 발간한 각종 책들이 성경과 동일한 위엄을 가지고 새로운 종교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주장하는 '안식일'이 단순히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안식일 다음 날, 즉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도 일요일이고, 초대 교회가 이를 준행하여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 까닭에 지금도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은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요 축제일이요 감사절이요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매일 매일을 주일같이 살아가야 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요일이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제칠일 안식일'을 매우 각별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범하며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을 준수하는 자들은 형벌을 받는다 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든지 사단이 지배하는 세력에 굴복하여 멸망의 길로 가든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없고, 주일을 지키는 개척교회는 사단이 지배하는 집단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교회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재림 사상'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 24:36) 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가 재림한다고 교세를 확장하다가 '대실망의 날'이 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의 재림은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그들 만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계 12:17), 곧 '하나님의 마지막 참교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와 AD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거쳐, AD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확정되어 지금까지도 개혁신교회에서 공히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이며, 또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에서는 사도신경을 부인하고, 이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지옥이나 영혼의 불멸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는 비록 믿음으로 인한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주장하는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에 통과해야 하고, 그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는 십계명을 철저히 지켜야 함은 물론이고 각종 율법 행위들을 온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악한 품성이 변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육식과 부정한 음식을 금하고 채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에 의한 구원이 아닌, 율법적인 행위에 의한 구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에서는 외형적으로는 성경만이 모든 교리의 표준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으나, 그 바탕과 기준은 창시자인 엘렌 화이트(Ellen G. White)가 본 2,000여 가지의 환상을 근거로 해석한 책들을 같은 위치에 놓고, 복음을 어지럽게 하며, 정통 교회를 표방하며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 세력'이 선교지에 강력하고도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만이 구주 되심을 온전히 전파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엡 6:11-17)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57-10 226th St. 1F. Bayside, NY 11364

